

AI 공존 사회 발표회 II

5. 29.(금) 10:00~16:50, 223동(우석경제관) 504호

사회: 조한나 국가미래전략원 선임연구원

시간	내 용	
10:00~10:10	개회사 (강원택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세션 1		사회: 박종희 경제안보클러스터장
10:10~11:10	메타인지를 변화시키는 기술로서의 AI: 재귀적 메타인지, 지능의 일상재화, 그리고 새로운 불평등의 구조	박현우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
	이제는 ‘비판적 건강 시민’의 시대: AI 건강정보, ‘단순 문해’를 넘어 비판적 판단과 활용 역량으로	유명순 보건학과 교수
	AI와 함께 학습할 수 있을까요? 인간과 AI 간 상호작용과 교육적 시사점	조영환 교육학과 교수
	AI 시대의 삶의 의미: 일에서 관계로 (ZOOM)	엄성우 윤리교육과 교수
11:10~11:40	토 론	
11:40~12:40	휴 식	
세션 2		사회: 윤제용 탄소중립클러스터장
12:40~13:25	스포츠에서 AI 정당성 담론과 AI 공존 사회에 대한 성찰	권순용 체육교육과 교수
	인공지능 도입과 화이트칼라의 대응: 러다이트의 비교사적 탐구	조영준 경제학부 교수
	인공지능(AI) 기반 정책·행정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위임 태도	함현호 행정학과 교수
13:25~13:50	토 론	
13:50~14:10	휴 식	
14:10~14:20	인사말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세션 3		사회: 강원택 원장
14:20~15:05	다중 에이전틱 AI시대의 일의 변화와 미래 역량	김동호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AI와 화이트칼라의 공존 메커니즘: ‘대체를 넘어 ‘증강’과 ‘사이보그 작업장’의 모색	윤참나 경제학부 교수
	AX(AI Transformation) 시대의 도전과 산업정책	임혜란 정치외교학부 교수
15:05~15:30	토 론	
15:30~15:40	휴 식	
세션 4		사회: 한정훈 민주주의클러스터장
15:40~16:25	쉬운 전문용어로 설명하는 AI를 위해서	이광근 컴퓨터공학부 교수
	AI가 바꾸는 인간의 성과 출산의 미래	손환철 비뇨의학교실 교수
	AI가 대체하는 ‘학교의 사회적 기능’: 돌봄·사회화·민주시민 양성은 누가 하는가	엄문영 교육학과 교수
16:25~16:50	토 론	
16:50	폐 회	

메타인지를 변화시키는 기술로서의 AI

: 재귀적 메타인지, 지능의 일상재화, 그리고 새로운 불평등의 구조

박현우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

1945년 버니바 부시는 “성숙한 사고의 기계적 대체물은 없다”고 선언했다. 본 연구는 이 “성숙한 사고”를,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하며 학습의 방향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 즉 메타인지라 해석한다. 80년간 이 선언은 유효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동안 “질문을 잘 하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외쳐왔지만, 정작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도구는 사람 사이의 대화가 유일했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가 이 선언에 대한 최초의 실질적 도전이라고 주장한다. AI는 대화를 통해 사용자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을 드러내고, 알고 있으나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로 꺼내도록 도우며, 이를 통해 메타인지가 혼자서는 도달하지 못했을 영역까지 작동하게 만든다. 본 연구는 이 과정을 ‘재귀적 메타인지’라 개념화하고, 인간의 새로운 인지 역량의 차원으로 제안한다. 한편 AI가 누구에게나 높은 수준의 지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지능이 일상재화됨에 따라, AI의 출력을 끈기있게 검증하고 실행하는 성실성이 성과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 동인으로 부상할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같은 AI를 쓰더라도 재귀적 메타인지 역량의 차이가 성과에 비선형적으로 반영되면서 새로운 불평등 구조를 형성한다. 본 연구는 이 구조를 분석하고, 그 교육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제는 ‘비판적 건강 시민’의 시대

: AI 건강정보, ‘단순 문해’를 넘어 비판적 판단과 활용 역량으로

유명순 보건학과 교수

전통적으로 보건의로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 제공자와 일반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이 매우 큰 영역으로 이해되어 왔다. AI의 등장과 확산은 이러한 전문가의 건강 지식 독점이나 정보 우위 (‘의사만 아는 건강정보’)를 완화하고 정보 접근성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누구나 AI를 통해 접근가능한 건강정보’). 그러나 동시에 AI 건강정보 시대는 새로운 형태의 격차를 만들 가능성을 드러낸다. 정보 접근성이 곧 정보의 판별과 활용 역량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의 핵심 문제는 건강정보의 ‘접근 격차’가 아니라, 정보 과잉 환경에서 건강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별하고 활용하는 역량의 격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AI 건강정보 시대에는 기존의 기능적(functional) 헬스 리터러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새로운 차원의 헬스 리터러시 개념이 요구된다고 본다. 과거 정의는 방대한 건강정보를 개인 신념과 선호 맞춤으로 제공하고, 친근하고 설득력 있게 상호작용하는 AI 건강정보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본 연구는 헬스 리터러시의 다양한 개념 중 비판적 헬스 리터러시 (critical health literacy)를 재조명(revisited)하고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통해 AI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비판적 헬스 리터러시의 구성 개념을 제시한다. ▲ 또한, AI 건강정보의 판별이나 활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장 활발한 AI 사용자 집단으로 볼 수 있는 대학생 (2백명)과 일반인(3백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소규모 서베이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와 사회적 공론화에 대한 함의를 논의한다.

AI와 함께 학습할 수 있을까요? 인간과 AI 간 상호작용과 교육적 시사점

조영환 교육학과 교수

교육에서 AI 활용이 증가하면서 맞춤형 학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 주도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을 방해한다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AI가 인지적 부담을 줄여주고 혼자서 하기 어려운 뛰어난 성과를 가져다 주면서 AI 의존 현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AI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AI와 함께 하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인간과 AI 간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분산인지(distributed cognition) 이론에 따르면, 인간-AI 시스템을 하나의 활동 단위로 보고 인간과 AI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 인간과 AI가 더 많은 지식을 공유하고, 더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할수록 더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AI 시스템의 성과가 항상 인간의 깊이 있는 학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AI에게 과제를 위임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는 상호수동성(interpassivity)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인간-AI 시스템의 어떠한 속성이 인간의 학습을 촉진하는지 혹은 방해하는지 밝힘으로써 AI 기반 교육을 설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인간과 AI 간 상호작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떠한 활동이 인간-AI 시스템의 높은 성과와 인간의 깊이 있는 학습을 가져오는지 탐색한다. 또한 연구 결과로부터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고, 역량을 평가하고, 교육용 AI를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AI 시대의 삶의 의미: 일에서 관계로

엄성우 윤리교육과 교수

AI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일자리뿐 아니라 인간이 삶의 의미를 구성해 온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은 그동안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성취, 사회적 기여, 공동체적 소속감, 정체성, 자존감의 중요한 원천이었다. 그러나 AI가 인간의 의미 있는 활동까지 점차 대신하게 될 경우 인간은 일에서 얻던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의미공백’에 직면할 수 있다. 본 발표는 이러한 의미공백의 한 가지 중요한 응답을 가족, 친구, 연인, 가까운 동료 등과의 인간관계에서 찾고자 한다.

본 발표는 덕윤리적 관점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삶을 단순히 좋은 결과를 산출하는 삶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어가며 덕스러운 활동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인간관계는 단지 사적인 일이나 ‘사소한’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성취의 장이며, 가까운 사람의 삶에 깊이 기여하는 장이다. 또한 인간관계는 소속감, 관계적 정체성, 사랑하고 사랑받는 대체불가능한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인간관계는 AI 공존 사회에서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핵심적인 영역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발표는 AI 챗봇이나 소셜 로봇이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 있다는 반론을 검토한다. AI는 위로와 공감을 기능적으로 모방할 수 있지만, 진정한 관심, 상호성, 책임, 공유된 삶의 역사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AI는 인간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인간관계를 포기하게 만드는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AI가 인간의 일과 성취 일부를 대신하게 되는 변화는 상실과 불안을 낳지만 동시에 우리가 일과 성취에 지나치게 맡겨두었던 삶의 의미를 다시 돌아볼 계기가 될 수 있다.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중요한 길이다.

스포츠에서 AI 정당성 담론과 AI 공존 사회에 대한 성찰

권순용 체육교육과 교수

AI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진단은 그 유용성과 위험성에 대한 내러티브가 공존하는 일견 모순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한편으로 지능(intelligence)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더 높은 지능은 당연히 더 좋다는 논리와 같은 AI 기술 혁신에 대한 낙관론적 찬양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AI 기술 혁신이 정당화되고 가속화되고 선호될수록 오히려 인간 역량의 부족, 약화, 결핍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두드러지게 심화되는 모순적 상황을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AI의 낙관론과 비관론이 스포츠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스포츠-AI 결합이 어떻게 정당화되고 있는가를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스포츠는 AI 기술 혁신에 대한 낙관론이 두드러지는 대표적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경기 수행력 향상, 심판판정 공정성 제고, 팬 경험 고도화, 신체활동 경험 효율화 등 스포츠에서 AI 적용 사례는 눈부실 정도로 급증해 오고 있다. 그러한 과정은 그동안 수행 향상을 위한 시험장(testbed) 또는 사용 사례(use case)로 인간-기술 본원적 결합을 정당화해 온 스포츠 모습의 재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24년 발표된 IOC 올림픽 AI 아젠다는 스포츠-AI 결합을 기회와 위험의 공존으로 보고 AI 위험 완화를 위한 원칙과 전략을 제시하면서 보다 지속가능한 스포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스포츠-AI 정당화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AI 낙관론과 비관론을 관통하는 기술 중심주의 또는 기술 결정론, 그리고 인간 수행과 경험에 대한 데이터화(datafication)와 자동화(automation)를 둘러싼 성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도입과 화이트칼라의 대응: 러다이트의 비교사적 탐구

조영준 경제학부 교수

본 연구는 인공지능(AI)이라는 전대미문의 기술적 전환점을 맞아, 과거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이 직면했던 러다이트(Luddite) 운동을 비교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19세기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은 기술 도입으로 숙련 가치가 붕괴되는 국면에서 발생한 생존권 투쟁이었다. 역사적으로 범용기술(GPTs: general-purpose technologies) 도입 초기에는 생산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과 분배 지연(Engels' Pause)이 반복되었으며, 이는 늘 격렬한 사회적 저항을 동반했다. 오늘날 생성형 AI가 고숙련 전문직 업무까지 포섭하며 실존적 위협을 가함에 따라, 저작권 소송과 집단행동 등 '화이트칼라 러다이트' 양상이 재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저항을 비합리적 반기술주의가 아닌 전환기 구조적 갈등으로 재조명하고, 19세기 영국과 21세기 현대의 노동자 대응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기술 수용의 역사적·사회적 경로를 탐구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정책·행정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위임 태도

함현호 행정학과 교수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의 확산은 정책 결정, 행정 집행,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복지 심사, 치안, 세무, 보건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AI 기반 시스템의 도입이 논의되거나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변화를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정책 결정과 행정 집행의 권한을 행사하는가에 대한 '위임(delegation)'의 문제이자 민주적 책임성과 정당성의 문제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가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시민들은 정책결정 및 행정의 영역에서 AI 기반 시스템과 인간 공무원 중 어느 쪽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려 하는가? 정치적 양극화와 당파성은 이러한 시민의 AI 위임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AI 기반 시스템 결정의 오류나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은 그 책임을 누구(정부, 공무원, 개발/운용기업, 시스템 자체)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가?

본 연구는 최근의 연구를 종합하고,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실험을 통해 이러한 질문들에 답한다. 첫째, 시민들의 AI 위임 및 수용 태도는 기술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 정치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둘째, AI 기반 시스템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그 책임을 여전히 인간 공무원과 정부에게 귀속시킨다. 셋째, AI와 자동화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시민이 인지하는 위협은 일자리와 소득에 대한 경제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민주적 참여와 정치적 효능감의 약화라는 정치적 차원, 그리고 윤리 및 가치 문제와 관련된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오늘날 심화하는 정치적 양극화의 조건에서, AI 기반 정책 결정과 행정 집행의 정당성이 단순한 기술적 효율성만으로 확보될 수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 정당성은 책임성 사슬의 명확화, 인간 행위자의 실질적 책임 유지, 그리고 제도적 신뢰의 회복 위에서만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AI 시대의 정책·행정 위임 구조와 민주적 거버넌스 설계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세션 3

다중 에이전틱 AI시대의 일의 변화와 미래 역량

김동호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본 발표는 생성형 AI와 다중 에이전틱 AI의 확산이 산업 현장의 일하는 방식과 인간의 역할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기존의 디지털 기술이 주로 보조적 도구로 기능했다면, 최근의 AI는 판단 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여러 에이전트가 목표를 분담·수행하는 자율적 수행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역할도 직접 실행자에서 목표 설정자, 조정자, 검증자, 최종 책임자로 이동하고 있다. 발표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관점으로 인간-자율시스템 협업(human-autonomy teaming)을 검토하고, 생성형 AI가 지닌 구조적 한계—평균적 답안으로의 수렴, 미래 변화에 대한 선제성의 부족, 맥락과 암묵지의 결핍, 과도한 사용자 동조 가능성—를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AI 시대의 인간 고유 역할과 미래역량을 문제설정 역량, 선제적사고 역량, 역동적 재구성 역량, 오케스트레이션 역량으로 정리한다. 본 발표는 다중 에이전틱 AI 시대의 경쟁력이 단순한 AI 활용 숙련이 아니라, 인간이 AI와 함께 더 나은 판단 구조와 협업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제안한다.

AI와 화이트칼라의 공존 메커니즘: ‘대체를 넘어 ‘증강’과 ‘사이보그 작업장’의 모색

윤참나 경제학부 교수

본 발표는 생성형 AI가 화이트칼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일자리 대체’가 아니라 ‘과업 묶음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ChatGPT 이후 AI가 전문직·사무직을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지만, 최근 실증 연구는 보다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AI는 소프트웨어 개발, 글쓰기, 자료 정리처럼 규칙화 가능한 과업에서는 높은 생산성 효과를 보이는 반면, 예외 처리, 맥락 판단, 대인관계, 최종 책임이 필요한 과업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중요하다. 특히 Dell’Acqua 외(2026), Eloundou 외(2024), Handa 외(2025) 등의 연구는 AI의 영향 단위가 직업 전체가 아니라 직업 내부의 세부 과업임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근로자 AI 사용 경험률은 높지만, 거시 생산성 향상과 기업 거버넌스는 아직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청년·신입 화이트칼라, 중소기업 사무·IT 직군, 여성 비중이 높은 사무직 등에서 비대칭적 충격이 관찰된다. 이에 본 발표는 한국이 ‘대체 중심’ 경로를 피하고 ‘재구성’을 거쳐 ‘증강 중심’ 경로로 이행하기 위해 교육, 고용, 산업 정책의 세 축을 제안한다. 핵심은 AI 도입 속도가 아니라 인간 판단력, AI 능력, 조직 워크플로우를 함께 설계하는 ‘사이보그 작업장’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다.

AX(AI Transformation) 시대의 도전과 산업정책

임혜란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근 글로벌 주요국의 경쟁적인 산업정책 확대로 ‘산업정책의 귀환’ 시대가 도래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에 ‘지능’과 ‘자율성’을 더하는 인공지능 전환(AI)은 이제 국가적 생존 조건이다. AX 시대는 세 가지 결정적 도전을 부과한다. 첫째, 국가 안보와 기술 자립을 위한 ‘소버린 AI’ 확보의 시급성이다. 둘째, 막대한 데이터와 컴퓨팅 자본의 격차로 인한 산업·기업·노동 간 양극화 심화이다. 셋째, 저숙련과 고숙련을 가리지 않는 노동 대체 리스크이다. 기술이 노동을 대체할지 혹은 증강할지는 필연이 아닌, 제도와 산업정책이 결정할 선택의 문제다.

현재 한국은 반도체 등 하드웨어는 강하나, 파운데이션 모델과 플랫폼 같은 소프트웨어는 추격자에 머물며 글로벌 생태계의 부품 공급자 역할에 갇혀 있다. 그러나 2026년 정부의 AX 예산 배분(총 10.1조 원)을 보면, 기술 기반 조성에 3/4(7.5조 원)을, 산업 및 생활 공공 응용에 1/4인 2.6조를 배정했다. 현 정부의 AX 산업정책은 강점 강화와 GPU 확보 및 기반 모델 개발에 치중했다. 향후 한국의 AX 산업정책은 인간과의 공생을 지향하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먼저 예산의 무게중심을 인프라에서 기반 모델과 플랫폼 부문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AX 진입장벽을 낮춰 양극화를 완화하고, 노동자의 실질적 재훈련 등 역량 변화 정책에 역점을 두어 노동증강형 AX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쉬운 전문용어로 설명하는 AI를 위해서

이광근 컴퓨터공학부 교수

AI 시대는 500년 전에 닫힌 괄호를 다시 열고 있다. 500년전 대량 출판기술이 발명되면서 실 시간 문답을 통해서 소수만 배워가던 시대가 닫히고, 출판한 글을 읽고 배우는 시대가 열렸었다. 이제 AI를 대상으로 다시 문답을 통해서 전문가가 키워지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에 AI와 주고받는 모국어 학술 문답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하나 있다. 영어권과 달리 한국어 전문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들이 대부분 어려운 한문투 용어(일본이나 중국에서 온, 우리로서는 소리로만 읽는 전문어)라는 문제다. 이렇게 AI가 사용하는 학술의 언어가 의미전달이 어렵기만 해서는 문답을 통해서 전파되는 지력은 넓게 멀리 다다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AI를 훈련시킬 모국어 쉬운 전문용어로 된 양질의 전문 콘텐츠를 어서 축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어가 학술장벽을 뚫는 첫 번째 터널이라면, 두 번째 터널은 우리말 쉬운 전문용어다. 전문 개념을 영어 용어로만 넘기지 않고 우리말의 직관으로 흠뻑 빨아들일 때, 전문가는 두 언어권의 어휘력을 양날개 삼아 공부의 깊이를 수월하게 이룬다. 그래서 우리말 쉬운 전문용어는 저변 인구를 넓혀주는 효과만이 아니다. 모국어의 심연을 활용하여 전문가각자의 연구력을 글로벌 탐으로 보다 쉽게 올려주는 비밀 병기다. 영어와 모국어 쉬운 전문용어에 동시에 접속하는 전문가, 이런 전문가는 영어로만 접속한 연구자보다 더 입체적이고 지혜로운 생각을 더 쉽게 펼친다.”

이 주장의 배경과 근거를 살펴본다. 배경으로는 우리 학술문화와 외국 역사사례를 살펴보고, 과학적인 근거는 언어심리학과 인지과학의 학술자료에서 살펴본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논의한다.

“전문용어를 쉽게 바꾸면 학술적인 깊이나 엄밀함이 떨어지지 않나?” “영어는 전문용어가 쉬운 단어로 되어있으니 쉽게 원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굳이 우리말 쉬운 용어로 바꾼 텍스트가 필요할까?” “요즘은 인공지능이 쉽게 설명해달라고 하면 다 설명해준다. 굳이 쉬운 전문용어를 만들어야하나?” “쉬운 전문용어란 순 우리말 용어를 뜻하나?” “전문용어는 어차피 전문가용 아니던가. 우선은 전문가들끼리 효과적으로 소통하는데 집중하면 되고, 그러다 나오는 멋진 성과들에 대해서만 널리 쉽게 전하면 되지 않을까?” “전문용어는 영어나 한문이 제격이다.” “모국어는 전문가용으론 어색하다.”

AI가 바꾸는 인간의 성과 출산의 미래

손환철 비뇨의학교실 교수

인공지능(AI)은 노동과 산업 구조의 변화를 넘어 인간의 사랑, 성생활, 임신과 출산 등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와 감정형 AI의 발전은 인간 친밀감(human intimacy)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저출산 사회에서 인간관계와 재생산의 미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본 발표에서는 AI가 인간의 성과 출산에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상반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AI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드는 시나리오이다. AI 기반 매칭 시스템과 관계 분석 기술은 개인 간의 정서적·심리적 적합성을 보다 정교하게 예측하고, 관계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AI는 의사소통 보조, 갈등 조정, 정신건강 지

원, 성기능 관리 및 난임 예측 등의 영역에서 인간관계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AI는 건강 데이터와 생활습관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성생활과 출산에 대한 개인 맞춤형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경주기와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란 시기를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고, 최적 임신 가능 시점을 제시함으로써 자연 임신 성공률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관계의 안정성과 친밀감을 높이고 결혼과 출산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는 AI가 인간관계를 점차 대체하는 시나리오이다. 감정형 AI, 가상 연인, 디지털 성 콘텐츠 및 AI 기반 성기술(sex tech)의 발전은 인간이 실제 타인과의 관계 없이도 충분한 정서적·성적 만족을 경험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 특히 AI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결합하여 인간관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즉각적 만족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게 될 경우, 일부 개인은 인간관계보다 AI 기반 관계와 디지털 친밀감에 더 몰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인간 사이의 직접적 관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AI 기술 발전이 인간의 성, 친밀감, 출산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상상해보고자 한다.

AI가 대체하는 ‘학교의 사회적 기능’ : 돌봄·사회화·민주시민 양성은 누가 하는가

엄문영 교육학과 교수

본 연구는 학교의 네 가지 사회적 기능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하고, AI 개별화 학습이 등교의 의미·또래관계·안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코로나19 원격수업을 자연실험으로 활용하여 학교의 집합성이 약화될 때 학습 격차 확대,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위기 아동 발견 지연, 돌봄의 사적 영역화가 동시에 발생함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미래를 세 가지 시나리오— ① '지식학교'의 잔여화, ② '사회화학교'로의 전환, ③ '하이브리드 학교'의 재설계—로 제시하고, 시나리오③을 현실적 정책 지향점으로 제안한다.

정책 과제로는 학교 정체성의 법·제도적 재정의, 교육과정의 '사회적 시간' 중심 재구성, 교원 역할의 재설계, 학교 평가 지표의 전환, 사회 통합 관점의 이원적 출석 정책을 제시한다. 본 발표는 AI 담론이 기술적 효율성에 집중되는 현실에서 학교라는 사회 인프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한국 사회의 통합과 민주주의 기반 보존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